'따뜻한 세상' 만드는 불자들

◇정억순보살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40여년째 이불을 만들어 보시해 오고 있다.

40년째 이불 보시 정억순 보살

이불보다 따뜻한 보살행

선방 · 고아원 등에 이불 1만여채 전달 인생 격려 편지도

"사랑이 간다."

1일 대각행 정억순(60 · 미륵원장)보살은 손수 지은 이불 3백93채를 호남지역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보내는 자리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사랑으로 한땀 한땀 지어 온 이불을 전달하며 내뱉은 "사랑이 간다"라는 말 속에 녹아 있는 대각행보살의 마음은 이불보다 따뜻하다. 20살 때부터 시작된 이불보시가 이제 40년이 지났으니, 그 세월 속의 사연이나 우여곡절은 이불만큼 많다. 선방, 사찰, 고아원, 양로원 등에 전해진 이불만도 9천여채. 2일부터 4일까지 부산 · 대구 · 전라 · 충청도 등 19개 시군구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해지는 이불 1천3백여채까지 합치면 1만여채 이불 속에 불보살의 마음을 담아 보내왔다.

이번에 전달한 이불은 설날을 맞아 추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아이들을 포근하게 덮어주게 되었다. 한채 한채 정성껏 포장된 이불 속에는 '인생 성공은 배움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격려 편지도 담겨졌다.

평생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이불을 만들어 온 대각행보살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3형제는 보살피지 못했다. 한 채의 이불도 해주지 못했다. 마음 가운데 저절로 차오르는 어미의 자식 사랑을 전하지 못했으니, 대각행보살의 이불사랑은 한의 커다란 회향인 셈이다. 천길 나락같은 고통을 사랑으로 돌이켜 남을 향해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보살'로 부르지 말고 '할매'로 불러 달라고 당부한다. 보살행을 하지 못하는데 보살은 무슨 보살이냐면서 대각행보살은 자식들이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 소년소녀가장처럼 자라났기에 이번 이불 전달은 '진정 사랑이 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전달로 인연된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는 옷 생필품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게 되며 올 여름 미륵원에서 수련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특별히 좋은 일 한다는 생각도, 내가 한다는 생각도 해 본 적 없어요. 불법 배웠으니 실천하며 사는 것 뿐이죠. 남을 위해 사는 길이 바로 나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죠."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무료 컴퓨터 교육 박광열 씨

◇실직 및 결손가정 등의 청소년들에게 무료컴퓨터 교육을 하고있는 박광열씨.

불우 청소년에 꿈 심어

결손가정 · 실직자녀 학원 등록 취직 알선 음악회 열어 탈선 예방도

실직 및 결손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남몰래 무료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는 청보리가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안성 한우리정보처리학원 박광열 원장(31). 박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굴암사(주지 보덕)에 거주하는 정선화(명륜여중) · 이몽준(안정중학교)군을 비롯 결손가정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컴퓨터교육을 해오고 있다. 특히 항상 교복만 입고 다닌다는 굴암사 학생들의 생활상을 듣고 옷까지 장만해 줄 정도로 자비행을 펼치고 있다. 그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비가 없어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볼 때가 가장 가슴이 저민다고 말한다. 하루는 한 학생이 학원 입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아버지가 실직해서 학원을 다닐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겨울방학동안 무료로 등록시킨 학생만 해도 10여명에 달한다. 그의 숨은사랑은 92년 컴퓨터학원 개원 때부터 시작돼 많은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배웠고 취직도 했다.

박원장은 "상처받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어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심정으로 시작했다"며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때까지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컴퓨터는 그에게 희망이다.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자신과 똑같은 청소년시절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년시절 그는 김치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을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컴퓨터를 배우면서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92년 강사생활을 청산하고 안성에 학원을 차렸다. 이 때부터 그의 자비행은 시작됐다. 학원을 마친 청소년들이 술집 등 유흥가를 배회하는 것을 보고 청소년음악회를 마련하는 등 어려운 청소년 돕기에 나선 것이다. 컴퓨터에 대한 열정이 상처 받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한 것이다.

"예전에는 가난해서 굶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굶는다"는 박광열씨의 일관된 신념은 '끼와 능력'을 모두 동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더이상 외롭지 않게 보살펴 주는 것이다. 이번 설날에도 실직 및 결손가정 아이들을 찾아볼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송광사 '민족문화 교육관'

승보종찰의 국민정신 교육장

단기출가 1천여명 수용 각종법회 · 수련시설 갖춰

천년 역사를 머금고 한국불교 맥을 지켜온 순천 송광사(주지 현지). 승보종찰이라는 위명처럼 16국사와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한 송광사가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수행과 교육을 위한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련원으로 사용될 민족문화교육관이 바로 그것. 민족문화교육관은 4개동으로 A동(수련원), B~D동(기숙및 식당 강의실 사무실)이 건립된다. 송광사는 1차 불사로 지난해 8월 효봉영각 앞 9백평 부지에서 수련원(73평) 기공식을 가졌다.

민족문화교육관이 완공되면 겨종단적 집체교육(행자및 비구(니)계교육 등) 강원 선원 율원 염불원 스님들의 집단교육, 춘계보조국사 종재, 추계 효봉종사 추모법회 등 각종 대형법회, 출 · 재가불자들의 교육과 수련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각종 수련회 세미나 교육 등의 장소로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30여년의 재가불자 수련회 역사를 갖고 있는 송광사는 그간 시설미비로 수련회를 여법하게 치룰 수 없었다. 수련원이 완공되면 '4박5일 단기출가' 하계수련회에 참석치 못한 1천여명을 전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송광사 주지 현지스님은 "송광사를 전국민의 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사를 시작했다"며 "수련원이 완공되면 연중무휴로 각종 수련회를 개최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광사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교육관 불사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IMF 한파로 인해 현재 주축기단만 올라간 상태로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고승들의 위업만큼이나 한국불교의 중요한 위치를 점해왔던 송광사의 이번 민족문화교육관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면 불자들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지난해 8월 기공된 송광사 민족문화교육관이 경제한파로 더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원내는 주지 현지스님.

마곡사 대전지역 전법 나섰다

백제불교통신대 개설…불교회관도 추진

공주 마곡사(주지 진허)가 24일 백제불교통신대학 개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법 활동에 나선다. 마곡사는 대전지역 전법 활성화를 위해 대전지역 11개 사찰주지스님들과 협의를 거쳐 대전지역 중장기 전법사업 기획단을 결성하고 방안을 마련했다.

대전지역 전법활성화 방안은 △대전불교회관 건립 △교육사업(통신 · 불교교양대학 개설) △조직사업(구역법회조직, 계층및 분야조직, 신행단체활동) △사회복지사업(IMF 실직자 쉼터, 노숙자 급식소, 복지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운영) △불교방송국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곡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포교전진기지 대전불교회관 건립이다. 이를위해 마곡사는 2백여평의 건물 임대나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불교회관에는 법당 강의실 결혼식장 장례예식장 등이 갖춰지며 각 신행단체의 신행활동 공간으로도 활용하게 된다.

이밖에도 마곡사는 충남지역의 잇단 훼불 방화사건 등으로부터 권익 보호,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 신행및 교리상담실 운영, 정기법회 개설 의무화, 각종 지역 연계활동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

김중근 기자

낙산사 홍련암 해체 복원 받침기둥 부식 붕괴 위기

양양 낙산사(주지 지홍) 홍련암 법당을 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심하게 부식되는 등 붕괴위기에 처해, 해체 복원된다.

해안 절벽 위에 위치한 홍련암은 법당을 받치고 있는 구조물 부식으로 외벽이 3m이상 떨어져 나가 철근이 드러나는 등 외견상으로도 심각한 상태다.

홍련암은 이달초 해체 복원을 골자로 한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을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했다. 홍련암 법당 해체 복원공사는 문화재관람료 중 30%의 예치금과 보시금 등 1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말까지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직지사 금오복지관 위탁

노인센터 · 탁아소 등 운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4월 1일 개관하는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권자로 1월 28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재단 김천지부인 조계종 제8 교구본사 직지사가 실질적인 운영권을 맡았다. 제8교구에는 상주 냉림사회복지관과 더불어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금오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 5백98평 연건평 4백70평 규모로 지하에는 노인복지센터가, 지상 1층에는 아동시설과 유아 · 탁아실이, 2층에는 사무실과 상담실이, 3층에는 독서실과 강당등이 들어서게 된다.

직지사는 3월중으로 인력채용 및 부대시설을 완비한 후 개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결식아동에 3백만원 천안사암련 전달

천안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묵조 · 보광사 주지)는 1일 교육청을 방문 결식아동돕기 성금으로 3백만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에서 회장 묵조스님은 "현재 천안지역 결식아동이 1천2백84명에 달하는 등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회원 사찰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선도산 사적지구 지정 문화재관리국 재검토

선도산과 그 주변 역사유적 환경보존을 위해 계명기독병원 건립을 불허하는 등 선도산 사적지구 지정을 추진하던 문화재관리국이 사적지정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문교 문화재관리국 국장은 1일 경주을 출신 임진출 국회의원(문광위)의 전화 통화에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경주시 선도동 선도산의 사적지구 지정 계획에 대한 유보 의사를 통보했다.

문화재 관리국은 지난해 1월 문화재 위원회를 열어 선도산 일대 국립공원 1백20만평 등 2백여만평을 사적지구로 지정키로 의결하고 경주시에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경주시는 주민들의 반발로 회신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강지연 기자

불교합창제 · 사상 강연 전북불교회관

전주 전북불교회관(원감 회일)은 6일 전북예술회관에서 '불교합창제 및 사상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불교회관 어머니 합창단과 판소리 대가 한승원씨, 대금연주가 최명호씨 등이 출연, 전통 고유의 소리를 선보였다.

김중근 기자

아봐타 코스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롭고 깨달음과 평화를 얻으십시오.

아봐타는 자기 자신의 신념이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 및 사건들을 창조하거나 끌어 당긴다는 단순한 진리를 토대로한 강력한 **자기변성의 효과**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코-스)이다.

참된 신앙과 현실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자기자신의 신념체계를 자연스럽게 탐구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하는데 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자성이 본래 모든 만물을 낳고 자성이 본래 오고감이 없음을 아봐타 코스에서 당신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아봐타 코스는 7일~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에게는 무료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지하철 양재역 5번출구~마을버스(구룡사행) 삼호물산 하차

慧元 아봐타 센터

주소: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30-3 은혜빌딩 2층
전화: (02)579-9379 FAX: (02)572-5514

인간과 미래를 생각하는 열린교육의 장

동국대학원 사회교육원생 모집

1999학년도 봄 학기 불교교육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1. 모집과정

과 정 명	세부과정명	과 목(반) 명	교강사명	교육기간	주/이수분
교양교육 과 정	불교란 무엇인가?	I	권 기 종	1 학 기	주 간
		II	권 기 종	-	-
	좌선법의 이해와 실제	I	인환스님	-	-
		II	인환스님	-	-
	선 기 공 (4학기과정)	초 급 반	적운스님	-	-
		중 급 반	적운스님	-	-
		고급·시범반	적운스님	-	-
전문교육 과 정	불교전문교육 (4학기과정)	불교와 경전의 이해	권 탄 준	-	-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최 종 석	-	-
		초기불교의 이해	최 봉 수	-	-
		대승불교의 이해	권 기 종	-	-
		중국불교의 이해	장 휘 옥	-	-
	경 전 연 구	법 화 경	권 기 종	2 학 기	-
	깨침의 세계		최 봉 수	-	-
	불 교 영 어		김 종 명	-	-
	한문해석법		심 재 동	-	-
통신교육 과 정	동 국 대 TV 불교아카데미 (4학기과정)	천태불교의 이해	리 영 자	1 학 기	BTN을 이용한 방송강의
		근본불교윤리	조 용 길	-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김 용 표	-	
		대승불교의 길잡	권 기 종	-	
		신의 이해와 역사	정 성 본	-	
		한국 불교사특강	김 영 태	-	
박물관교육과정	불교박물관대학		문 업 디	2 학 기	주 간

2. 지 원 자 격
· 일반 성인으로 자격제한 없음

3. 원서교부 및 접수
· 1999년 2월 1일(월)~2월 26일(금) 사회교육원 교학과(90주년 학술관 1층)

4. 제 출 서 류
가)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와 사진(여권용) 3매
나) 주민등록등본(동국대 TV불교아카데미과정 등 일부과정에 한함)

5.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TEL (02)2260-3728~9 / FAX (02)2260-3730

학점은행제는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이를 학점은행제에 의거하여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대학졸업학력 또는 전문대학졸업학력을 인정받게 되며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은 교육부 학점은행제 시범운영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98학년도 가을학기부터 5개 교양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1999학년도 제8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법사(法師)란

※ 법사의 칭호는 대승경전에 의거하며 불교 3보의 이상적 가치를 생활속에 구현하려고 마하연의 정법을 섭수정법하는 대승의 보살로서 불교 종교인의 신앙요건과 법사법위 품수 의례의 과정을 거쳐 법사의 자격을 여법히 받은 대승행자인 불교지도자임을 말합니다.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법위품수와 소정의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본 법사교단에 포교원및 사찰을 등록할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불교 기본의식 포함)
대법사과정 = 2년 (불교 상용의식 포함)
6. 원서교부 및 접수 : 1999년 1월 5일~2월 2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3층)
☎ (02) 720-1836 · 733-1959
737-5305 · Fax : (02) 737-5305